임실 군민참여인단 간담회

연구용역 추진상황 ·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 토론 형식 진행

15일 임실군은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미래청사진을 그리는 미래발전연구 군민참여인단 간담회를 갖고, 군민주도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군은 향후 10년간의 미래비전과 특화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임실군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군민참여인단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가졌다.

군민참여인단은 연구용역 수행에 있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민주도형 상향식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참여인단은 관내 기관단체 대표자 등을 구성원으로 농업농촌 · 문화관광 · 산업 · 복지 · 지역개발 등 5개 분과 27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추진 중인 미래비전 연구용역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10년간 임실군이 지향하는 발전방향을 그리는 것으로, 작년 6월부터 오는 6월까지 1년간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 중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0월에 700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 삶의 질과 만족도 비전 및 목표, 세부 발전계획에 대한 의견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제1차 간담회는 그동안 수행해온 연구용역 추진상황과 미래 발전전략에 대해 책임연구원인 안홍기 국토연구원 지역경제연구센터장이 설명하고, 황태규 우석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참여인단이 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발전전략 수립 단계부터 군민 참여인단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또한 참여인단 간담회를 더욱 확대해서 군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제시된 정책과 사업들은 국가예산 확보와 후속 조치를 마련해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심 군수는 "임실군의 발전은 군민이 아이템을 주고, 군민이 주도해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 동참과 책임의식이 앞으로의 미래 임실을 이끌어가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오수면, 파크골프 열기 '후끈'

임실군, 어르신의 건전한 여가생활로 자리 잡아

임실군 오수면에 불어닥친 '파크골프'의 열기가 한겨울 동장군을 몰아내고 어르신의 건전한 여가생활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984년 일본에서 시작된 파크골프는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노약자가 즐기는 생활스포츠로 군은 지난해 10월 오수면 의견공원 내 1만㎡(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준공했다.

준공 이후 오수, 삼계, 지사 지역을 중심으로 의견파크골프동호회가 빠르게 결성돼 인기를 실감했으며 현재 150여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5~6개팀 30여명 이상의 회원들이 꾸준히 파크골프장을 찾는 등 스포츠를 즐기며 상호 화합하는 여가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파크골프장을 찾은 한 어르신은 "젊은 사람들처럼 뛰고 넘는 과격한 운동은 힘이 들어 못하는데 파크골프는 운동량도 많고 무엇보다 서로 이야기하며 즐길 수 있어 매력적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장독대 분양행사 행사규모 확대

7080 복고 패션 한복 · 발효 소스 토굴 체험 등

순창군(군수 황숙주)이 오는 25일 열리는 장독대 분양행사를 '장 독립 만세데이'로 정하고 일반 관광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사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장독대 분양행사는 대를 이어 전통장 담그기를 계승해온 장인의 마을인 순창고추장민속마을에서 도시민과 전통장기능인이 함께 메주를 만들고 장을 담가 참여 도시민에게 분양하는 행사다.

100%순창에서 생산된 메주콩과 고추, 국내산 천일염을 써 만들며 6개월간 숙성시켜 각 가정에 배달해준다.

분양가는 고추장 5kg, 된장 6kg, 간장 3.6ℓ정도를 만들 수 있는 1구좌 기준 20만원이다.

군은 최근 장독대 분양행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참여 문의가 많아 이번 장독대 분양행사는 전통 장을 분양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한다.

또 다가오는 3 · 1절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명도 장(醬)독립만세데이로 정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땅에서 난 콩으로 담은 된장을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컨셉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기능인들과 된장 고추장 담그기 프로그램은 물론 참가가족들이 직접 청국장과 된장을 이용해 밥 지어먹기, 7080 복고 패션 한복체험, 발효소스토굴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 했다.

장독대 분양 참가자는 별도 비용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체험행사에만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33명까지 선착순 신청 받아 진행한다. 체험참가비는 1인당 15,000원이다. 예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장류사업소 전화 063-650-545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농촌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순창군이 서울대학교와 함께 농촌 노인들의 근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에 활기가 돌고 있다.

군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이용호 교수팀과 함께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맞는 신체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개발한 운동 요법은 노인들의 근력향상 뿐 아니라 정서적 인지적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법이다.

군과 서울대학교는 지난해 12월부터 8주동안 순창 옥천 2마을과 적성 지북마을, 구림 자양마을 등 6개 마을을 시범마음으로 선정해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농촌노인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농촌 노인의 겨울철 낙상방지를 위한 근력 향상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무료한 일상생활을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막춤, 장구 등을 활용한 춤과 노래를 스트레칭, 놀이 ·게임과 곁들여 진행해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또 서울대학교 연구진들이 해당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운영해 참여율도 높다.

/순창=이양원 기자

심민 임실군수, 국가 예산 확보 나서

심민 임실군수가 국가예산 확보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심 군수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2018년도 지역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편성 초기단계부터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심 군수의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 군수는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 있는 현안설명과 그동안 긴밀하게 유지해온 중앙부처와의 돈독한 협력관계를 최대한 발휘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심 군수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신규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한편 중앙공모사업의 순탄한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말 임실군은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신규사업과 올해 공모사업 대응상황 보고회를 갖고, 쟁점사업을 자체적으로 선정했다.

임실군이 자체적으로 발굴?수립한 2018년과 2019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총 36건에 3,090억원 규모이며, 중앙공모사업은 25개다.

이를 위해 심 군수는 이미 지난 1월 국토부와 환경부를 잇따라 방문해 섬진강댐(옥정호) 제 2순환도로 개설과 노후상수관망 개량사업을 건의하는 등 연초부터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심 군수가 이번에 방문할 중앙부처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다.

심 군수는 먼저 15일 국민안전처를 방문해서 도봉소하천 정비와 입석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 사업의 신규사업 반영과 내년도 국비반영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경찰, 직장내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

고창경찰서는 지난 14일부터 2일에 걸쳐 전 경찰관 · 행정관 183명을 대상, '직장내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선진 직장문화 정립하고자 밀도 높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정읍 성폭력상담소장 박종숙 강사를 초청하여 성폭력 · 성희롱의 개념과 예방 및 대처방식 등 특히 일상의 변화를 촉구하는 심도있는 강의로 직장 내에서 간과해선 안 될 사항, 요청사항 등을 주문했다.

고창경찰서장은 "경찰관이 먼저 성폭력 · 성희롱에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직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실시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고 2,000만원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시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월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였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남원시 출연금액의 10배에 이르는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능력이 없어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3년 동안 2%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 ·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체 등이다. 이밖에, 관내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특례보증 신청은 남원시청 경제과(620-6343)로 하면 된다.

남원시는 보증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보증지원을 실시해 소상공인의 경영과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8개 업체에 40억원을 지원했다. 이차보전도 1억1,700만원에 이른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아름다운 숲 보전 총력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아름다운 숲 보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다음달 8일까지 부안면 검산리 일대의 해안가 산림 26ha에 대해 5000만원을 투입해 투입 솔껍질깍지벌레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 방제에 나선다고 15일 전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소나무에 침입해 4~5년 경과 후 수관 아랫부분 가지의 잎부터 갈색으로 변색되면서 재선충병의 원인인 솔수염하늘소와 같이 소나무를 감염시켜 말라 죽게 하는 해충으로 3월부터 5월경까지 활동하며 주로 소나무 및 해송림에 피해를 준다.

군 관계자는 "솔껍질깍지벌레는 한 번 감염되면 소나무 재선충병에 추가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노력할 계획이다"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철저한 예찰과 함께 죽은 나무는 제거하고 샘플을 채취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소나무 재선충병이 없는 청정한 지역을 유지하여 고창군의 아름다운 소나무를 병해충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